

더불어 숲이 되는



만덕사람들

2009년 6호

3·4·5월

발행·편집 : 만덕사람들, 만덕종합사회복지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전화 : 332-8004 | 후원 : 북구, 사상구 복지컨소시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cafe.daum.net/mandukpeople>

사랑을 나누는 만덕동 사람들

우리 동네 개미 아저씨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한길중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아침8시 전후)에 만덕3주공 입구 삼거리에 가면 우리 동네 개미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

너무 부지런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만덕삼주공 입구 삼거리는 매일 아침 전쟁이다. 만덕삼주공과 한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출근 차량과 자녀들을 등교 시켜 주기 위해 올라오는 차량으로 숨을 쉴 수 없이 바쁘다.

또한 도보로 등교하는 청소년들로 인하여 도로를 부쩍 거린다. 여기 이 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 모자를 눌러쓰고 교통안내를 하는 분이 있다. 바로 만덕2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길중님이다.

한길중님은 1984년 신만덕동이 형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개미 아저씨로 알려져있다. 매일 아침은 교통정리로 바쁘고 마치고 나면 지역사회 쓰레기 수거와 만덕2동 환경(나무)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우리 동네에 없으면 안되는 분이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은 이른 한길중님을 보고 칭찬이 자자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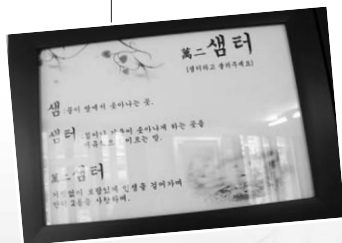
‘동네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습관이 몸에 베어있다.’, ‘동네 지구대에서도 힘들어서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있다.’, ‘우리 동네에 없어서는 안되는 분이다.’ 등 많은 지역 어르신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개미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가득하다면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만덕동이 되리라 확신한다.



소개합니다.

『萬二(만이)샘터』

만덕2동 신 만덕시장 입구(농협건너편)에 가면 ‘만이샘터’라고 있습니다. 만덕2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 장소인 샘터는 어느 한분의 지역 어르신께서 손수한 지역 주민들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길 바란다면 지역사회에 기증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만덕2동을 사랑하는 많은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들어가 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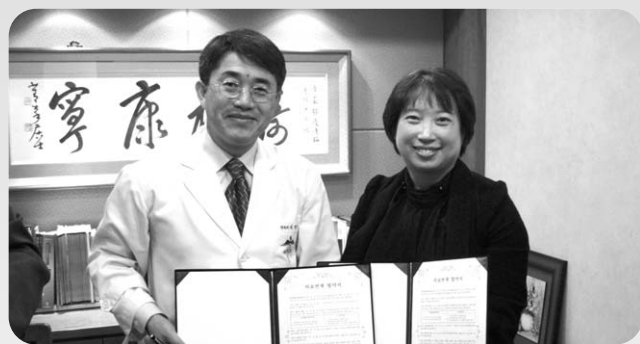
우리마을소식

☑ 2009년도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 ▶ 추진기간 : 2009. 5. 1. ~ 12. 31.(8개월)
- ▶ 지원대상 : 2009. 5. 1.이후 둘째자녀 출산가정(산모)
※ 부모소득 무관, 출산 1개월전부터 부산시 거주자(주민등록자)
- ▶ 지급액 : 1회 20만원
- ▶ 지급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매 10일마다 지급

☑ 눈사랑 안과·만덕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안과 진료를 위한 협약식 실시

- ▶ 일 시 : 2009년 4월 9일
- ▶ 장 소 : 서면 눈 사랑 안과
- ▶ 내 용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안내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21세기 국제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연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교 육 명 : 닥종이인형, 단소만들기, 칠보공예 등
- ▶ 교육일정 : 2009. 6. 7(일), 6. 21(일), 8. 8(토) 총5회

※ 자세한 일정은 문의 바랍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550-8841, 어촌민속관 ☎363-3333)

- ▶ 교육대상 : 다문화가정 150명(30명/회)
- ▶ 장 소 :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화명동 소재)
- ▶ 교 육 비 : 무료

주민기자 및 주주모집

만덕사람들은 만덕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박한 그릇입니다. 마을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 또는 주주로 참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 1구좌 월 5천원

- ※ 마을 신문 현재·격월 발간 1회당 33만원 소요
- ※ 33명의 주주가 참여하면 안정적인 마을 신문 발간 가능

<http://cafe.daum.net/mandukpeople>

복지관 이용자 후기



요즈음 나는 M사회복지관(만덕2동 소재)에서 점심을 종종 사 먹는다.

나이 60세 이상인 분과, 장애인은 천원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라고 한다.

처음 복지관이 생겼을 때 백양산 만남의 광장 정도로 산행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건의가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 복지도 좋지만 산행 후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복지도 중요하단다.

다른 복지관의 예를 들면서 점심 한 끼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던 모양이다. 그 때 나도 한 마디 조언을 했다. 점심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그때 복지관 관계자들은 재정관계로 어렵지만 곧 실행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 중략...

복지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당연한 수혜자인데도 망설여지는 것은 왜 그럴까? 좀 늙었으니까 노인 축에 든다고 고지식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지만... 갈 때마다 어색하다.

어떤 젊은이는 나를 보고 '어르신'이란 호칭으로 불러줄 때가 있다. 듣기 싫지는 않다. '어르신'은 '어르신 네'의 준말이다. 즉 남의 아버지나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어 일컫는 말이다.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불린다고 볼 때는 기분 나쁜 말은 아닌 것 같다. 할아버지란 말보다 느낌이 더 좋다.

실제로는 할아버지인데도 어감의 차이는 있다.

급식 제공받는 사람을 면밀히 보면 내보다 나이가

많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사람, 뇌경색으로 온 환자,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백발이 흩날리는 병약한 노인들이 더러 있다. 그 속에서 한 구성원이 되어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군침을 흘리고 있으니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 하다고나 할까?

급식제공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산상 80명분만 제공된단다. 늦으면 밥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한다. 그럴 때 내가 귀중한 밥을 생각 없이 먹고 있으니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 중략...

M복지관의 점심 제공은 영양사 한 분과 몇 명의 자원봉사자의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불편한 사람을 부축하면서 식사를 하게한다. 과연 그들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상임을 격찬해도 지나친 과찬은 아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빈 가슴을 끼니와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자원 봉사는 아침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이지만 황금 같은 시간을 틈 내어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렵지만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의지와 용기, 실천의 결정체가 바로 그들이었다.

나도 건강하다면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데 모두 여자들이라 흥일점으로 봉사한다면 제법 재미있을 것 같다. 웃을 일인 것 같다.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으로 노인들의 시름은 잠시나마 사라질 것이다. 내일은 또 갈 수 있을까?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손길로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밥 냄새는 마치 촌집 아궁이 솥에서 솟아져 나오는 어머니의 내음이다.

된장국, 김치, 닭찜이 군침을 삼키게 한다.

파뿌리 같은 노인들과 자원 봉사자 그리고 그 속의 나를 그려보면서 날씨가 추운데 봄바람이 불기를 기원해본다. 자원 봉사자들이 식사를 마련하면서 항상 오시던 분이 안 보이시면 혹시 아픈가?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된다.

나는 복지관 식탁에서 쓸데없는 잡념을 비누 방울로 띄우면서 제발 늙지 않도록 가슴에 종이학을 띄워본다.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복지관에서 천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내 자신! 나는 이곳에서 무한한 행복감을 만끽한다. 밥 먹는 소리가 흥겨운 장단으로 들린다.

글, 사진 || 정산 강구중(시인)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 토요일체험활동

내가 만든 샌드위치로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을 전해요~!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등대친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요리 활동이 진행되었다.

오늘의 요리는 샌드위치와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다양한 야채와 재료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식빵에 버터도 바르고 딸기잼도 바르고 양상치, 피클, 토마토, 계란 등을 올려 각자의 취향과 개성에 맞게 다양한 샌드위치들이 완성되었다. 이어서 토마토 주스도 함께 만들어 보았다.



▲ 요리활동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등대친구들의 모습이다.



▲ 혼자사시는 어르신들께 샌드위치를 나누어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 어르신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4학년 친구의 모습이다.

글, 사진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등대학교 5학년 SM 권보림

만덕고등학교 환경 프로젝트

2008년부터 기획해 온 만덕고등학교의

교의 이종원 미술선생님의 프로젝트이다.

2학기의 미술수업으로 학생들과 함께 찰흙을 가지고 도자기타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항상 “다 만들어서 학교옹벽에 붙일거다. 너희가 나중에 졸업하고 다시 왔을 때 보면 재미있을거야”라고 하셨다. 학생들이 정성스레 만든 도자기타일은 올해 4월중순에 시공을 하기시작했고 4월말에 모두 붙었다.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계의 높은 분들이 구경을 오신다고 하였고 이미 국제신문에 실렸다.

mbc에서도 촬영을 나올 예정이다.

아직은 몇개 없어서 허전하고 부분부분 붙어있지만 해마다 계속 만들어 붙일 거라고 하셨다.

걱정되는 것은 이종원 선생님께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신다.

삭막한 옹벽에 학생들의 아기자기한 작품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구경할 것도 생겨서 기분 좋게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는 한 아주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고등학생의 작품이나. 초등학생이 만든것 아니냐. 못만들어도 너무 못 만들었다. 이런걸 왜 붙이냐.” 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

학생들은 예술가가 아니기때문에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전시되고 삭막한 학교의 옹벽이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기원한다.

글, 사진 || 만덕고등학교 2학년 이은경



뇌출혈을 이겨내기 위해 주차단속을 하게 된 안종규 할아버지

늘 등대학교 등교를 하다보면 열심히 주차 관리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다. 처음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했는데 할아버지는 인터뷰에 잘 대답해 주었다.

40년 전 여성패션디자이너 일을 했던 올해 57세 안종규 할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더 안 좋을것 같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차단속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4시~17시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시작한지는 2달정도 된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차량5부제에 날짜를 안 지킬때와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생길 때가 힘들었다고 한다. 만덕2동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주민센터는 앞마당에 주차를 하는데 차량5부제를 지켜주지 않으면 좁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만덕2동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편리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양보하고 차량5부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덕2동 주민 여러분 넓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5부제 꼭 꼭 지켜주세요.... 아자!! 아자!! 살기 좋은 만덕 만들기 화이팅!!

글, 사진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 6학년 강다영



희망의 사다리 운동 소식

친구를 가질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수진(가명)이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어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던 수진이는 학교에서는 말문을 닫았고 어머니에게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해 여러 차례 전학을 하였다. 우리가 수진이를 만났을 때 수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이던 친구든 무엇을 질문해도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10분이 지났을 때 우린 알게 되었다. 수진이가 치아문제로 말을 안 하다는 것을...

수진이를 설득하여 일단 치과를 방문하였다. 수진이는 치아우식증으로 12개의 치아가 심하게 썩어있는 상태였다. 수진이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구취가 나서 상대방과 대화하기를 꺼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만덕마을 “희망의 사다리 운동”을 통해 수진이를 위하여 치과 치료비를 준비하여 지원하였다. 15일 간의 치료를 통하여 드디어 진료가 끝이 났다. 수진이의 첫 말은 “친구를 가질수 있을 것 같아요” 였다.

수진이가 만덕동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느끼고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소원한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 감사합니다.

- 이필남, 권기형, 곽판용, 신종국, 신은희, 곽진영, 강기원, 류은경, 김선례, 윤유조경, 등마루산악회, 정신모, 김자경, 홍선옥

* 희망의 사다리 운동 후원금은 우리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쓰입니다.

♥ 희망의사다리운동 후원계좌

부산은행 227-01-001469-9 (예금주 만덕복지관)

♥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해주세요. ☎ 332-8004

만덕이 네!

지은이 김수빈





우리 동네 좋은 이웃

“컴퓨터 잘 고치는 집”

롯데 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앞 부산노인전문병원으로 가는 삼거리에 가면 ‘컴퓨터 잘 고치는 집’이라는 우리동네 좋은 이웃이 있다. 4평 남짓 작은 공간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걸려온 전화 한통 “컴퓨터 잘 고치는 집인데요 제가 우리 동네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데...” 전화를 받고 가게로 찾아갔다. 젊고 멋진 사장님께서 반겨주셨다. 사장님께서는 ‘만덕사람들’ 신문을 보고 자신도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다고 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후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동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컴퓨터는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하였다.

따뜻한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컴퓨터 잘 고치는 집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복나눔 가족봉사단 모집

아직도 단칸 방에서 외로이 홀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활동은 주 1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이루어 지구요. 활동은 자유롭습니다.

문의 : 김창근 사회복지사 (☎ 332-8004)



* * 인플루엔자A (H1N1) 예방수칙 * *



1.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2.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3. 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7일 이내에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급성호흡기 질환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기 중 2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 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www.bsnet.or.kr

어려울때 힘이 되는 북구, 사상구 복지 컨소시엄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아동,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 컨소시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에서 실시한 2006 테마 기획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북구·사상구 복지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북구, 사상구 22개 기관(부산 북구, 사상구 지역13개 복지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한부모가족희망센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북부교육청, 북구청, 사상구청, 부산일보사, 한진중공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화연락 바랍니다.

▶대표전화 : 888-8888
▶만덕복지관 : 332-8004

후원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고를 받습니다.

마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을 찾습니다. 5천원 이상의 작은 돈으로 주민들께 소중한 광고를 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료는 만덕사람들 신문 발간에 사용됩니다. 만덕사람들은 격월 3,000부가 배부됩니다.

☎ 332-8004

신문 배부처를 찾습니다.

마을 소식지 만덕사람들을 배부해 주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 332-8004

